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2026년 1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4개체)

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1 2026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-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79'**로 전분기(64) 대비 상승했으나, 기준치(100)를 밑돌아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됨. 또한, 고환율, 건설경기 침체, 불확실한 대외환경 등으로 업종 간 경기전망 양극화

○ 2026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79'

-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(64) 대비 15p 상승했으나,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,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,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지수의 상승 여력은 제한될 전망
- 특히, 고환율 피해 기업 수출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, 지역 기업이 느끼는 경기개선 효과 기대는 낮은 상황임
- AI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와 글로벌 전기·전자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경기호전 전망

○ 형태별 BSI는 1)수출기업 '74', 2)내수기업 '80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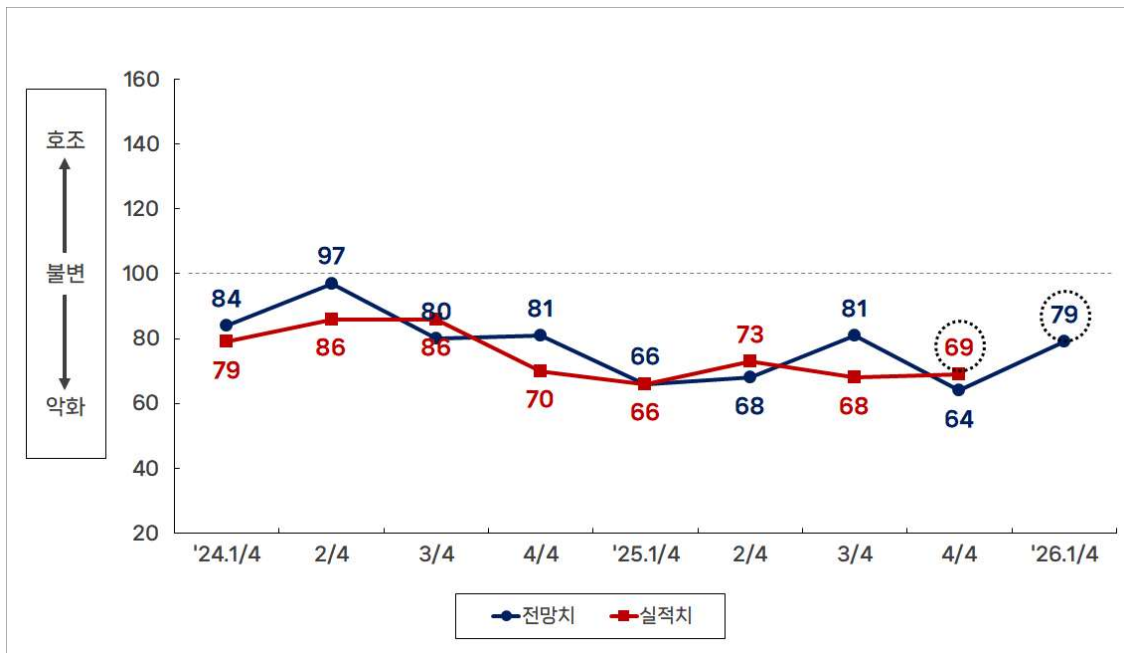
- 수출기업은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 하면서 전분기(78) 대비 4p 하락
- 반면, 내수기업은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전분기(61) 대비 19p 상승

○ 2025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69'

- 대미 수출 관세, 고환율, 소비둔화 등으로 경기실적지수는 전분기(68) 수준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2년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○ 2026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

- 전분기와 경기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제조업체가 126개사 (49.6%)로 최다
- 반면, 1/4분기 경기부진 전망 업체는 91개사(35.8%)로 경기호전 전망 업체(37개사, 14.6%)를 크게 상회

< 2026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37	126	91	254
구성비	14.6	49.6	35.8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정부의 소비증진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26년 1/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(76) 및 영업이익(75)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7p, 9p 상승

○ 매출(76), 영업이익(75)

- 연초 경기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, 신년 수주 확대 등의 긍정적 전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 회복 전망
- 다만, 소비부진과 원자재가 상승 부담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지수 수준은 여전히 부진

○ 설비투자(69), 자금사정(72)

-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소비위축 지속과 고환율로 인한 투자비용 부담 증가,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5.3/4분기	'25.4/4분기	'25.4/4분기	'26.1/4분기
체감경기	68 →	69	64 →	79
매출액	69 →	67	69 →	76
영업이익	67 →	65	66 →	75
설비투자	72 →	72	67 →	69
자금사정	66 →	60	68 →	72

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AI·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관련 업종인 **전기·전자(121)** 업종에서 경기호전 기대 확산, 또한 한·미 조선 협력 강화에 따라 지역 **조선·기자재업(110)** 또한 수혜를 기대하면서 경기호전 전망

○ 전기·전자(121)

- AI·반도체와 송·배전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및 투자 확대에 따라 전기·전자 제조업 업황 개선 전망

○ 조선·기자재(110)

- 한·미 조선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조선·기자재 기업에서도 수혜를 기대하며 경기호전 전망

○ 자동차·부품(90)

- 3)한미 관세협상 체결 및 소급 적용 조치로 기업 부담이 줄었으며,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(77) 대비 13p 상승
- 다만, 내수부진 지속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(100) 하회

○ 섬유(53), 의복·모피(43), 신발(43)

-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 부진 전망. 또한, 글로벌 수요부진과 중국·동남아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경기 악화 전망

3) 자동차·부품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 15%로 협상(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)
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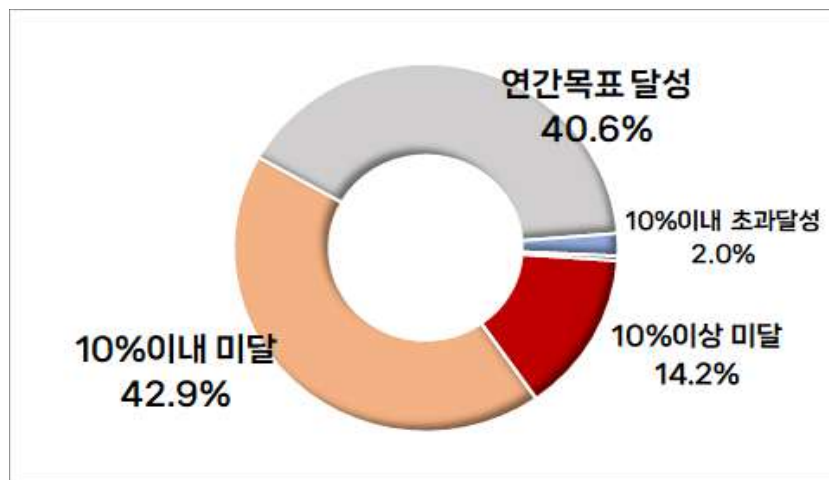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'25.3/4분기	'25.4/4분기	'25.4/4분기	'26.1/4분기
음·식료품	67 →	80	60 →	87
섬유제품	52 →	40	52 →	53
의복·모피	67 →	50	78 →	43
신발제품	67 →	55	60 →	43
화학·고무	65 →	76	65 →	68
1차금속	48 →	48	60 →	64
조립금속	65 →	55	70 →	105
전기·전자	100 →	121	56 →	121
기계·장비	85 →	94	79 →	106
자동차·부품	77 →	70	77 →	90
조선·기자재	77 →	97	60 →	110

4

2025년 경영 실적

- 응답 기업 57.1%가 연초 계획한 2025년 매출 목표 미달
 - 지역기업 중 연초 매출 목표를 달성 못한 기업이 각각 42.9%(10% 이내 미달), 14.2%(10%이상 미달)로 나타남.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,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, 내수부진, 환율 변동성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 때문으로 분석됨
 - 매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40.6%이며,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2.4%(10%이내 초과달성 2.0%, 10%이상 초과달성 0.4%)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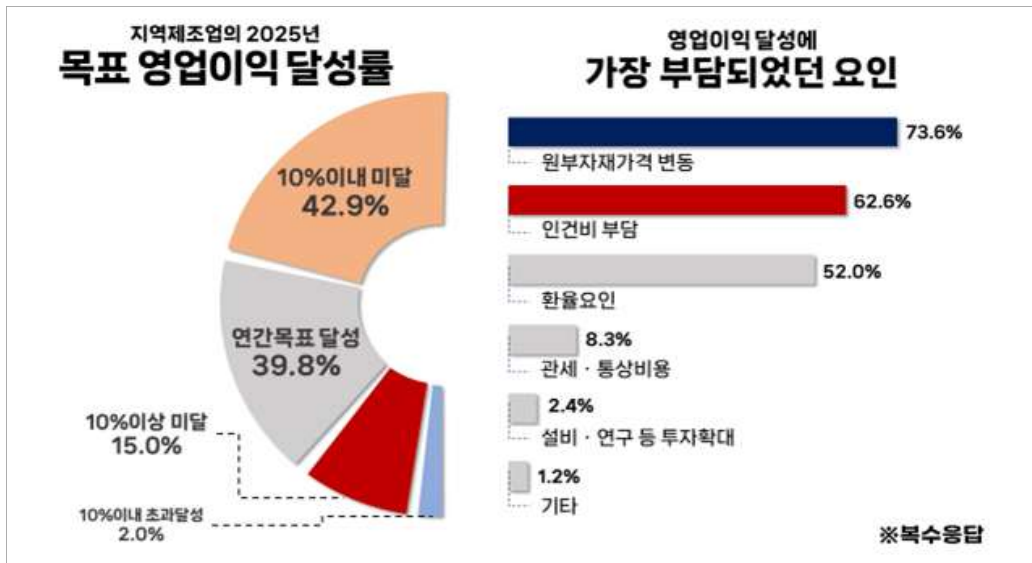
<부산 제조업의 연초 목표 대비 매출 달성 현황>



-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연초 계획했던 2025년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
 - 올해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한 기업이 각각 42.9%(10%이내 미달), 15.0%(10%이상 미달)로 나타나, 지역 제조업의 올해 영업이익 또한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‘원부자재가격 변동’(73.6%), ‘환율요인’(52.0%)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역 제조업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됨

- 특히, 원/달러 환율 기준, 4)환율은 2024년 12월 3일 기업사태 수준을 뛰어넘어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, 기업의 수입 원부자재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-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39.8%이며, 목표 초과 달성 기업은 2.4%(10%이내 초과달성 2.0%, 10%이상 초과달성 0.4%)에 불과

<부산 제조업 목표 영업이익 달성률 및 주요 부담 요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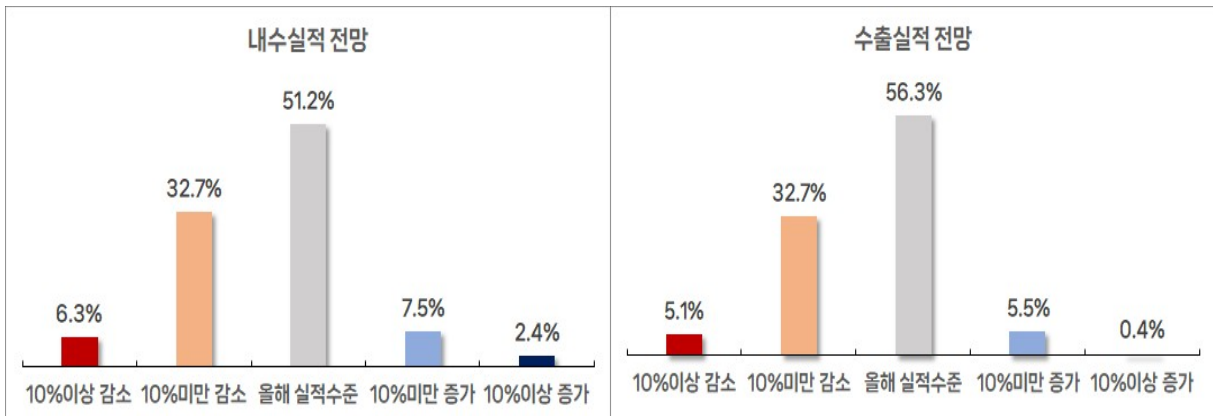
4) 원/달러 환율 종가기준, 한국은행 참조

5 지역 제조업 매출전망 및 경영기조

○ 지역기업 절반 이상이 2026년 내수·수출실적을 ‘2025년 수준’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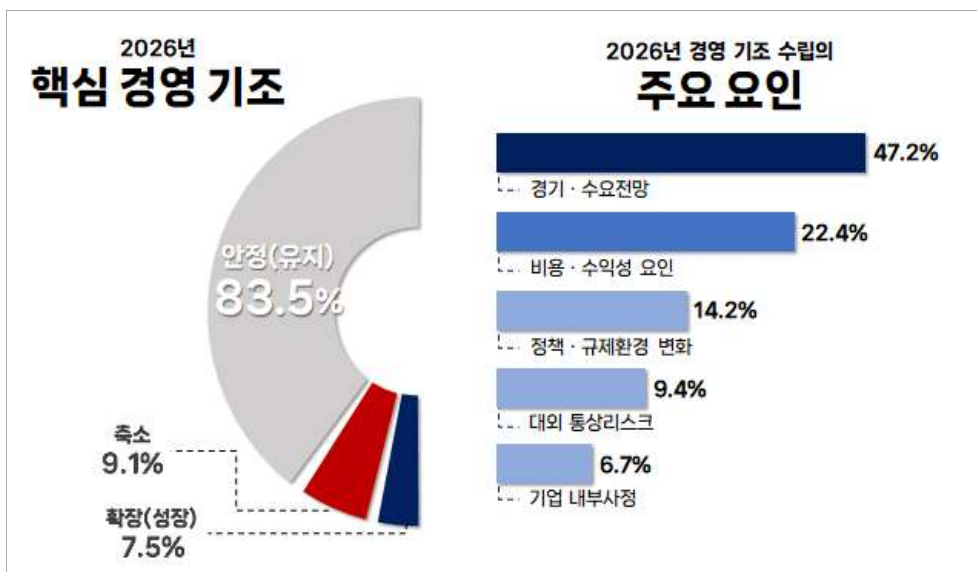
- 내수실적 목표 수준은 ‘올해 실적수준’(51.2%), ‘10%미만 축소’(32.7%), ‘10%미만 확대’(7.5%), ‘10%이상 축소’(6.3%), ‘10%이상 확대’(2.4%)의 순으로 집계
- 수출실적 목표 수준은 ‘올해 실적수준’(56.3%), ‘10%미만 축소’(32.7%), ‘10%미만 확대’(5.5%), ‘10%이상 축소’(5.1%), ‘10%이상 확대’(0.4%)의 순으로 집계
- 지역 제조업 대부분이 올해 수준 혹은 올해에 못 미치는 보수적인 내수·수출실적을 전망. 이는, 글로벌 소비둔화 지속에 대한 우려, 높은 환율변동성, 자금조달 부담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<지역 제조업의 2026년 내수 및 수출실적 전망>



- 지역 제조업의 83.5%는 2026년 핵심 경영 기조로 ‘안정(유지)’을 꼽음
 - 지역 제조업은 ‘경기·수요전망’(47.2%), ‘정책·규제환경 변화’(14.2%), ‘대외 통상리스크’(9.4%) 등의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됨
 - 이어 지역 제조업의 경영기조는 ‘축소’(9.1%), ‘확장(성장)’(7.5%)의 순으로 집계

<2026년 핵심 경영 기조 및 경영 기조 수립의 주요 요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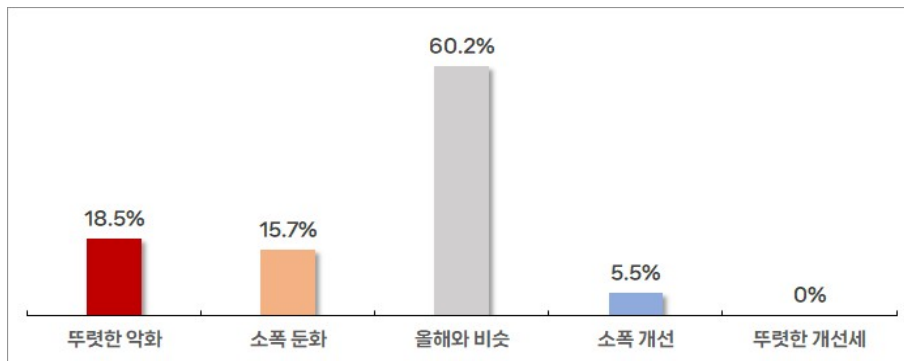


6

2026년 한국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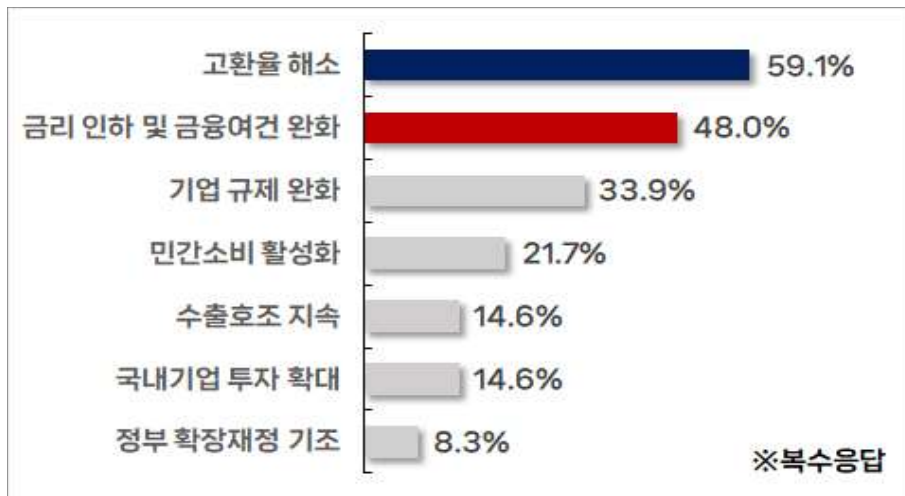
- 지역 제조업 60.2%는 2026년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
 - 이어 2025년 대비 ‘뚜렷한 악화’(18.5%), ‘소폭 둔화’(15.7%), ‘소폭 개선’(5.5%)의 순으로 집계되어, 지역 제조업의 2026년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

<2025년 대비 2026년 한국경제 경기흐름 전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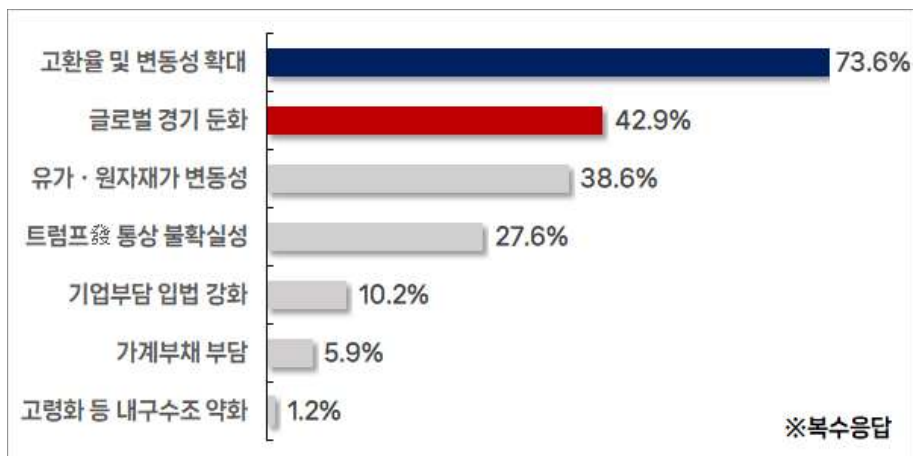


-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2026년 한국경제에서 ‘환율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
 - 지역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·제약 요인으로 각각 ‘고환율 해소’(59.1%), ‘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’(73.6%)를 가장 많이 꼽음
 - 이는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높은 금리수준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이 지역 제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개선, 기업규제 완화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경제 성장·제약의 주요 요인으로 꼽음

<2026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요인>



<2026년 한국경제 성장을 제약할 주요 요인>



○ 지역 제조업은 2026년 경제 활성화 및 기업실적 개선을 위해 ‘불확실성 해소’ 중심의 정책을 가장 많이 꼽음

- 기업에게 불확실성은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, ‘환율 안정화 정책’(69.3%), ‘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’(42.1%) 등의 대내·외 불확실성 해소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
- 이외에도 ‘위기산업 지원 정책’(37.0%), ‘국내투자 촉진 정책’(22.0%), ‘소비활성화 정책’(21.3%), ‘AI·첨단산업 육성 지원책’(5.5%) 등의 순 (※복수응답)

<2026년 경제 활성화 및 기업실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>

